

문화재연구 국제학술대회 (文化財研究 國際學術大會)

정 의 도

(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

문화재연구소(文化財研究所)에서는 1992년 이래로 매년 문화재연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국제학술대회는 한국고고학연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동시에 국외의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한국고고학연구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사실 한국문화(韓國文化)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문화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결코 따로 떨어져 스스로 이룩된 것은 아니다. 이 땅에 최초의 사람이 나타났던 구석기시대로부터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그리고 철기시대를 지나 컴퓨터시대라고 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화는 부단한 외부문화와의 접촉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스스로 한민족(韓民族)이라고 하는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단일민족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고고학연구에서 벗어나 해방후로부터 지금까지의 고고학연구결과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화는 끊임없는 외국과의 접촉과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선사시대에는 시베리아 지방과 중국 북부지방과의 문화교류를 들 수 있을 것이며 역사시대에는 가깝게는 중국과 몽고, 멀리는 중동아시아지방으로부터 끊임없는 문화교류와 접촉이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알기 위하여 어제의 우리 모습을 알아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역사학이 문헌사료라고 하는 한정된 자료에서 지난 시대의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고고학이라는 학문은 사람들이 남긴 삶의 흔적 즉 유적과 유물을 통하여 당시 주민들의 생활상을 복원하려고 한다. 이제 고고학은 1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진 학문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만큼 고고학 자료 즉 유적과 유물을 바라보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훨씬 과학화되고 있다. 이제 고고학에서는 당시 주민들이 남긴 많은 유적과 유물을 통하여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식생활을 해결하였고 어떤 집에서 살았으며 그리고 어떤 사회조직속에서 살았는가 하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고고학자료의 과학적분석도 오래전부터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면 패총에서 발견되는 동물의 뼈나 조개를 이용하여 어떤 계절에 잡았으며 얼마나 멀리 나가서 잡았으며 또 발견된 지역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이라면 얼마만큼이나 나가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보다 구체적인 생활상을 밝히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 '쥬라기 공원'을 보면 공룡의 피를 빨아 먹고 난 뒤 송진에 갇혀버린 모기를 찾아내어 공룡의 피속에 있는 D.N.A.를 분석하여 공룡을 복제(複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인류의 기원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쓰이는 것이다. 물론 그 이외에도 선사시대인들이 먹었을 고대미를 재생산한다든지 또는 천년전에 피었던 꽃을 다시 피워 본다든지, 고대인들이 지나갔던 뱃길을 더듬어 당시와 같은 배로 항해를 한다든지 수십만년전에 인류가 만들었던 석기를 오늘에 재현하고 그들이 석재를 구한 수법을 연구한다든지 하고 있는 것은 모두다 당시 주민들의 구체적인 실제모습을 알아 보기 위한 고고학적 시도인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요소로 구성된 한국문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나날이 새로워지는 고고학연구방법을 국내에 소개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문화재연구소가 주최하는 문화재연구 국제학술대회라고 할 수 있다. 또 한편 우리의 문화가 물론 앞서 언급한 것 처럼 따로 떨어져 이루어진 문화가 아니고 주변의 여러문화와 끊임없는 접촉과 교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 문화의 중요한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는 주변의 문화에 대하여 함께 토론해 보는 것도 대단히 의미있는 일일 것이며 여기에 국제학술대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국제학술대회가 성사되는데는 국제정치정세의 변화와 이를 계기로한 우리나라의 북방외교의 성과 또한 도외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때는 자료마저 구해보기 힘들었던 나라들의 자료를 어렵지 않게 구해 볼 수 있고 같이 학문적 토론을 하게 된 것은 실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정치적인 변화가 북한에 까지 이어져 남북한의 고고학자들이 나란히 문화재연구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을 요약하여 그 성과를 간추려 보도록 한다.

제1회 대회는 동아시아의 구석기문화를 주제로 하여 개최되었다. 동아시아의 구석기문화 연구의 성과를 일별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성과들이 발표되었다. 부산대학교 박영철교수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굴조사된 구석기유적의 편년을 제시하면서 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가장 이른 단계의 문화는 작은석기의 단순한 구성에 비하여 큰석기의 기능에 주안점이 주어지며 큰석기는 찌개류가 주를 이루고 양면석기, 단면석기가 포함되고 있다. 다음으로 중기구석기문화는 Würm 초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갈 찌개들 문화양상과 양면석기제작의 전통을 이으며 다수의 찌개류 및 격자석기를 포함하는 문화양상으로 대별하였다. 후기구석기문화양상은 석장리유적을 기준으로하여 다양한 격자석기를 포함하는 것과 좀돌날 또는 좀돌날몸통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누었다. 영남대학교의 정영화교수와 한양대학교의 배기동교수는 동아시아구석기문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서구(西歐)나 아프리카의 아슐리안 형태의 석기와 같은 많은 구석기들이 전곡리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면 유적의 범위도 한탄강과 임진강 근처 여러곳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 동아시아 전기구석기문화연구의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전곡리구석기문화는 그 특이성과 지역성을 고려하여 전곡리 구석기문화 전체를 상징하는 “전곡리안(CHONGOKNIAN)”이라고 하는 문화고유명사를 사용하자고 제안하였다. 건국대학교의 최무장교수는 “한국구석기시대 문화의 석재”라는 논문에서 한국의 구석기시대 석기의 석재는 90%가 석영과 석영암이며 석기제작의 절대기술은 직접타법 또는 모루상타법이며 후기구석기시대에 들어서면 발전된 기술로서 제작된 긴 석편과 소형 석핵이 제작된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 보서유적의 자갈들 석기문화를 발표한 중국 고척추동물 및 고인류연구소의 황위문(黃慰文)선생은 양자강(揚子江) 중하류에서도 자갈들 석기공작(石器工作)이 나타나며 이는 북중국의 남전(藍田), 삼문협(三門峽), 정촌(丁村) 등의 거대 석기공작과 기술적, 형식분류적으로 같은 전통에 속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

아시아내 전기구석기 문화는 서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곡리 구석기문화는 북중국의 거대 석기공작과 비교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동아시아 동단의 구석기 문화에서 일본 고유의 구석기문화로의 변화”를 설명한 일본문화청의 강촌도웅(岡村道雄)씨는 일본의 전기·중기구석기문화는 동아시아문화권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기후의 온난화로 비롯된 일본의 열도화는 고립을 심화시켜 일본문화의 독자성을 강하게 하고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지역성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 단계가 일본민족형성의 제일 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14,000년전에 북쪽으로부터 세석기문화(細石器文化)가 유입되었고 13,000~12,000년 전에 북으로부터 대형양면가공첨두기, 유설첨두기(有舌尖頭器), 타제석부, 그리고 남과 북으로 토기가 만들어 졌다고 하였다. 충북대학교 이용조 교수는 “청원 두루봉동굴의 구석기문화”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두루봉 동굴의 제 2굴에서는 4m에 걸쳐 모두 36개의 층위를 확인하였는데 문화층인 제7층에서는 열대·아열대기후에 사는 습성을 지닌 짐승의 뼈들이 발견되었고, 화분분석을 한 결과 251개의 나무꽃가루와 55개의 풀꽃가루가 검출되었으며 진달래과의 꽃가루가 대량으로 검출되어 6만년전 Iraq의 샤니다르동굴에 살았던 네안데르탈사람들이 무덤에 썼던 꽃보다도 두루봉 사람들이 집안에 먼저 꽃을 사용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흥수굴(興洙窟)에서는 완전한 2개체의 인골과 석기·동물화석들이 층위로 모두 발견되었는데 흥수아이의 머리뼈가 좁고 길며 특히 윗머리뼈의 굽은 길이는 매우 긴 가운데형 얼굴로서 현대인과 선사인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창유적의 구석기문화”를 발표한 서울시립대학교의 박희현교수는 창내 후기구석기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이라고 밝히고 이곳에서 발견된 중요한 내용은 후기구석기시대의 특징적인 뿔석기의 출토와 당시의 막집터를 발견한 것이라고 하면서 막집터는 원뿔모양으로 높이가 약 3.5m이고 면적이 10㎡ 정도되며 사용된 기둥의 길이는 4~4.6m 범위에 이르며 출입문 바로 앞에 크고 작은 자갈들을 이용하여 타원형의 화덕을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박교수는 이 유적이 후기구석기시대의 따뜻한 계절에 창내에서 원손잡이를 포함한 3~4명이 강가에서 막집을 짓고 사냥이나 물고기잡이를 하며 일시적으로 생활하였던 곳으로 해석하였다. 강원대학교 최보규교수는 “한국의 중석기문화”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에 있는 홍천강옆에서 발굴한 유적에서 다양한 짐돌날몸돌과 뿔돌날들을 발견하고 석기제작 수법과 석재로 미루어 보아 이 유적은 중석기시대에 해당되는 유적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유적에서 다양하게 발견되는 흑요석제 유물을 통하여 중석기시대 사람들의 이동 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유적의 발굴을 통하여 한국인의 기원은 신석기시대가 아니라 중석기시대와 구석기시대로 소급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한국선사시대의 시대구분도 구석기·중석기·신석기·청동기·초기철기시대로 재구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분소 고고민족지연구소 소장 Derevyanko씨는 “북아시아의 구석기문화”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 그는 석기발달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두가지의 문화적·역사적 전통이 관찰되었다고 말하면서 그중 하나는 우랄린카, 디링 우라크 등지에서 나타나는 자갈돌 석기전통과 고르니알타지방의 테니소바 동굴에서 발견되는 아술리안문화 전통으로 대별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출발단계를 거친 북아시아지역 구석기문화는 후기 아술리안과 초기 무스테리안공작으로 특징지어지며 이 시기에 해당되는 유적은 알타이산맥 일대의 아누이강과 우술강분지내에 분포하는 동굴유적과 야외유적에 분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제2회 문화재연구 국제학술대회는 동아시아의 신석기문화를 주제로 하여 개최되었다.

여기서는 신석기시대의 농경과 토기의 기능과 제작방법, 패총, 그리고 한국신석기문화와 중국신석기문화와의 관계를 논하는 다양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다음은 발표된 각 논문에 대한 요약이다. 국립전주박물관의 안승모씨는 “재배식물로 본 동아시아의 신석기시대 농경”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신석기시대 농경의 흔적은 정주(定住), 토기, 저장시설 또는 도끼·괘이·보습·낫 등으로 불리는 농경도구들도 확실한 사용흔적의 조사나 지방산 분석 같은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태의 유사성만을 가지고 농경도구로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탄화곡물·화분 등의 식물유체, 토기 바닥 같은 곳에 남은 재배식물의 압랑(壓痕)이나 논·밭 등의 농경유구와 같은 직접적인 자료의 발견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의 농경연구를 위하여는 주변국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중국에서는 장강유역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도작(稻作)농경의 유적 중에서 가장 확실한 절강성(折江省) 하모도유적(河姆渡遺蹟) 최하층의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조는 운남(雲南)과 대만(臺灣)에서 기원전 2천 년기에 나타나고 밀은 기원전 2천년기 후반에 운남에서 처음 나타나며 조와 기장은 신석기시대부터 재배되었다고 하였다. 일본에서는 승문(繩文)농경론이 주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식물유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이지만 1970년대 이후 재배식물을 포함한 많은 식물유체가 발견됨에 따라 적어도 승문(繩文)전기 이후에 재배식물이 존재하고 어떤 형태로든 농경 또는 재배가 행하여 졌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것은 주식의 공급원이 아니며 주식으로 이용되는 전분의 공급원은 견과류와 서류(薯類) 또는 구근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승문(繩文)시대의 생업은 기본적으로 수렵채집경제라고 하였다. 한편 한국에서는 황해도 지탑리에서 출토된 피와 조가 출토되었는데 이 유적은 대개 기원전 3500년 이전의 것으로 편년되는 것이며 조는 황해도 봉산군 마산리 주거지와 평양 남경유적에서도 발견되어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작물로 보았다. 그리고 경기도 일산에서 실시된 토탄층 조사에서 한반도에 도작(稻作)이 신석기시대 후기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여러 가지로 조사된 자료를 들어 한국의 신석기시대에 재배된 곡물은 조와 기장으로 이것은 중국 동북지방에서 전래되었다가 일본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판단하였다. 일본 나고야대학의 도변성(渡邊誠)교수는 승문토기(繩文土器)의 기능과 발달이라는 논문에서 승문토기(繩文土器)는 도토리의 탄닌제거를 위하여 발달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승문토기(繩文土器)의 기형이 출현에서 소멸까지 자비용(煮沸用)의 심발(深鉢)이 주류인 점, 승문시대(繩文時代)의 생업이 식물과 밀접하며, 승문(繩文)초창기는 한랭기의 연장상에 있어 자비(煮沸)를 필요로 하는 도토리가 주류인 점, 승문(繩文)전기에 토기가 원통형으로 되는 것은 제분기술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조선대학교 이기길교수는 “신석기시대 질그릇만들기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 논문에서 그는당시의 토기를 만드는 연장으로는 둥근 통이나 또아리 모양의 받침대 그리고 넓은 잎, 공개, 물가죽, 정금대를 썼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질그릇을 만드는 시기는 재료의 마련, 물그릇, 성형, 말리기와 굽기 등의 과정으로 보아 추운 계절은 부적당하며 날씨가 맑고 기온이 따스한 늦여름에서 초가을이 가장 적당할 것으로 보았다. 한편 노동력은 한 마을에서 일년동안 필요한 질그릇의 최소량을 100개라고 하면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8~10시간으로 할 때 하루에 3~4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숙련가 한 사람이 100개의 물그릇을 만들 때 3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만든 사람은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성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오히려 ‘숙련가’가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면서 바당흙, 찹감, 가마축조용 돌 등을 마련하고

나르는 일에는 마을 사람들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주장하였다. 신숙정씨는 “신석기시대 남해안지방 조개더미유적의 성격”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패총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생활은 여러 종류의 짐승사냥과 조개따기·채집활동을 포함하고 봄에는 조개따기와 채집, 여름부터 가을에는 난류성 어족(魚族)들을 잡고 겨울에는 물짐승사냥·새잡이 등을 주로 하였다고 분석하고 사계절의 자원을 사철활용하여 정착생활을 해 나간 곳으로 동삼동, 상노대도 뿐만 아니라 옥지도, 연대도, 송도 등 대부분의 남해도서지방이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았다. 수가리패총에서 유물출토량이 적은 것은 수가리패총일대가 사냥터였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수가리에서는 봄에서 가을까지 사람이 살았던 적극적인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중국 사회과학원(社會科學院) 고고연구소(考古研究所)의 임식남(任式楠)소장은 “홍융와문화(興隆窪文化)의 발견과 그 의의 및 동시기 화북지방 고고문화와의 비교”라는 다소 긴 제목의 논문에서 홍융와문화(興隆窪文化)는 중국에서 발견된 연대가 가장 빠른 신석기시대으 취락유적으로 둘레 560m의 인공환호 안에 100여동의 집자리가 10열로 나뉘어져 횡으로 배치되어 조사되었다고 하였다. 가옥들은 모두 지하식으로 말각방형 내지는 방형으로 중앙에 조리용 구덩이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며 취락 중앙의 대형가옥은 씨족단위 집회나 추장의 주거장소로 보았다. 그리고 이 대형가옥의 양쪽으로 다수의 중·소형 가옥들이 짝을 이루어 군집하는데 이는 모계대가족 성원 및 가족에 속한 미혼의 구성원 주거이며 이 유적은 건물의 배치상태로 보아 3개의 씨족연합으로 이루어진 친족집단으로 보았다. 강릉대학교 사학과 박흥기 교수는 “요동반도와 한반도북부지역 토기의 상호관계”라는 논문에서 요동반도 황해연안 북부 즉 단둥지구(丹東地區)에서 소주산(小珠山) 하층기에 병행하는 후와(後窪)하층문화와 여기에 후속하는 후와(後窪)상층문화 유적이 분출발굴된 것에 이어서 소주산(小珠山)상층기에 병행하는 석불산(石佛山)유형의 신석기후기유적이 발굴조사된 것은 요동반도지역 신석기문화와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하였다. 즉 석불산(石佛山)유형 문화의 존재는 이 유형의 후기신석기문화가 요동반도 북부지역과 서북한 일대에 일정한 분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면 서북한지역의 신암리(新岩里) I 은 석불산(石佛山)유형의 신석기후기문화에서 파생된 만기문화일 가능성을 높혀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서포항(西浦港) IV기층 -농포(農圃)- 호곡동(虎谷洞) I 로 이어지는 동북한의 신석기후기문화도 대체로 요동반도 북부지역의 석불산(石佛山)유형의 후기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지역 나름의 특성적 변천과정을 밟은 것으로서 중국 동북지방 특히 요동반도지역과 압록강·두만강 지구 및 길장지구(吉長地區)의 신석기문화는 한국민족의 신석기문화 전개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MEDVEDEV V.씨는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분소 고고민족지연구소 소속으로 “아무르강(흑룡강) 하류지역의 초기 신석기 문화”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아무르강 하류지역은 아무르강 유역과 아무르강으로 합류되는 우수리강 인접지역으로 20세기중반 이후에 말리세보, 콘돈, 보즈네세노프카유적이 발견되었으며 말리세보문화는 초기신석기 문화로 5~4천년기 B.P.로 편년된다. 특히 전통적으로 오시포프카 중석기문화에 속하는 석기류를 공반하는 아무르강유역의 다른 유적들 및 카시아주거지의 후기문화영역에서 높이 25~26cm의 눌린 납작밑토기를 포함한 초기의 토기들이 발견되었다. 이들의 방사성탄소연대는 12,960±120년으로 측정되어 세계 최고(最古)의 토기에 속하며 아무르유역의 신석기 유적은 동아시아 초기신석기 문화의 기원문제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동아대학교 박물관의 이동주 선생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한국의 초기신석기문화에 대하

여”라는 논문에서 한국의 신석기시대 토기인 용기문토기(隆起文土器)가 지형학적인 검토와 절대연대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일본의 초창기유적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시기적인 변화를 감수하더라도 최소한 패총유적보다는 선행하는 단계의 것으로 보았으며 용기문토기는 흑룡강연안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전파되었다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제3회 문화재연구 국제학술대회는 “동아시아의 청동기문화”를 주제로 하고 부제는 “유물을 통하여본 사회상”이라고 하여 개최되었다. 최몽룡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는 “청동기시대의 개념과 한국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에서 청동기시대의 개념은 사회문화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도시, 문명, 국가라는 세가지 주제로 나뉘어 지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한국의 청동기시대 구분은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는 무문토기를 사용한 시대=청동기시대라는 개념이 당분간은 유용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차후에 연구성과가 축적된다면 우리나라만의 발전과정에서의 특수성과 전세계적인 보편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개념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대구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청동기와 토기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편년이 없으며 유용한 절대연대가 많지 않고 극단적인 전과론에 입각한 이해, 청동기문화의 지역적인 범위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길림대(吉林大) 사학과(史學科)의 립운(林濤) 교수는 “중국동북지방 청동기시대의 새로운 고고학적 연구”를 통하여 중국동북지역에서 확인된 청동기문화가 하가점(夏家店)하층문화와 하가점(夏家店)상층문화이지만 새로운 자료로서 요북지방(遼北地方)에 고대산문화(高臺山文化)가 발견되어 순산둔(順山屯)유형 및 신락(新樂)상층문화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였다. 중국에서의 야동기술(冶銅技術)은 5,000년전의 홍산문화(紅山文化)에 까지 소급될 수 있으며 중국 동북지방의 비파형단검은 연국(燕國)을 포함한 광대한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북지방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빠른 시기의 유물은 금현수수영촌(錦縣水手營村)의 하가점하층문화 무덤에서 출토되는 하말(夏末) 상초(商初)의 동과(銅戈)라고 하였다. 동아대학교의 심봉근교수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마제석검의 분포와 그 성격”이라는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청동기시대 문화내용중 마제석검이라는 독특한 유물에 주목하여 석검의 변천과정을 5단계로 나누고 그 사용시기를 상한은 B.C. 7세기경으로 보고 하한은 B.C. 3C전반으로 보았다. 그리고 마제석검이 분포되는 지역은 중국 동북지방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구주지방이며 마제석검의 분포와 사용시기가 고조선식 동검과 비슷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세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마제석검과 고조선식 동검을 사용한 사람들은 문헌상에 나타나는 고조선집단일 것이라는 가설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석검을 소유한 자의 신분은 동검보다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나라문화재연구소(奈良文化財研究所)의 岩永省三은 “야요이시대 청동제무기 출현의 의의”라는 논문에서 한국에서 수입된 청동제 무기들이 권위나 사회적 신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취급되었으며 일본인들이 청동제 무기를 모방한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무기들의 양식과 기능에 변화가 일어나며 결국 이들은 군사적 도구에서 의식을 치루기 위한 개인의 장신구로 변해 갔다고 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유전관장은 “청동기시대의 공열토기”라는 논문에서 공열토기라는 명칭이 한병삼씨가 최초로 편의상 부르게된 것으로 공열토기가 즐문토기 말기에 함북지방에서 발생하였다는 설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나 토기의 구연부에 일정하게 반관통되게 하여 도들띠를 마련하게 된 것은 장식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공열토기로 명명된 토기가 공열을 갖춘 토기가 아니라 반관통에 의하여 도들띠를 마련한 것이므로 이 토기들을 “도들띠토

기”로 명명할 것을 주장하였다. “고르니 알타이의 파지릭문화유적”을 발표한 Polosmak는 파지릭문화가 1950년대에 알타이지역에서 발견된 왕묘에 그 유적지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명칭이며 여기에서는 풍부한 유물들이 얼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우록고원지대에서 새로 발견된 유적들은 파지릭문화의 연구에 많은 자료를 제공하였는데 그것은 이곳에서 전사(戰士)라든가 귀족계급의 위계에 관한 유물을 발견하였고 연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1993년에 미이라로 된 젊은 여성의 시신이 얼어 붙은 채로 발견되었는데 그녀의 손과 손가락에는 문신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녀가 제사장(祭祀長)이었거나 최소한 특수한 사회적 신분을 가지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진무 국립광주박물관장은 “한국식 동검문화의 성격”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 논문을 통하여 한국내의 요녕식동검문화가 적어도 한국식동검문화와 직결되기 어렵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동검문화변동을 단순히 한반도 내에서 단선적이고 계승발전적인 관계로 보거나 북에서 남으로의 단순한 문화파급으로 보기는 무리라고 하였다. 하촌지(下村智)씨는 일본 북강시교육위원회(福岡市教育委員會) 소속으로 “일본 유입기(流入期)의 청동기부장품”을 발표하였다. 그는 청동기의 연마방식(研磨方式)에 주목하고 있는데 일본의 쓰쿠오까모도유적에서 발견되는 동모들의 연마방식이 한국에서도 발견되는 점을 들어서 그 연마방식의 기원을 한국으로 보았다. 그리고 청동제 의구들이 야요이시대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킨카이양식의 옹관(甕棺)에 부장되기 시작한 것 또한 야요이시대의 청동기문화가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상으로 3회에 걸쳐 문화재연구소(文化財研究所) 주최 문화재연구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각 논문들의 요약을 마치지만 필자의 잘못으로 논문의 본위가 바르지 않게 전달되지 않은 점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점 양해를 구하며 고고학용어는 발표자의 것을 그대로 따라 통일하지 않았음도 아울러 밝혀둔다. 다음은 국제학술대회의 주제와 개최일시, 개최장소, 참가학자 및 주제발표 논문제목을 간추린 것이다.

1) 제1회 문화재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주제 : 동아시아의 구석기문화

개최일시 : '92. 11. 26 ~ 11. 29

개최장소 : 힐튼호텔 컨벤션룸

참가학자 및 주제별발표논문

국외학자

황위문(黃慰文)(중국 고척추동물 및 고인류연구소) -중국 보서유적의 자갈돌 석기문화-강촌도웅(岡村道雄)(일본 문화청) -동아시아 동단의 구석기문화로부터 일본 고유의 후기 구석기문화로의 변화

Derevyanko A.P.(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분소 고고민족지연구소) -북아시아의 구석기문화

국내학자

박영철(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구석기유적의 편년과 문화특성

정영화(영남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전곡리구석기문화

최무장(건국대학교 사학과) -한국구석기시대 문화의 석재

이용조(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청원 두루봉동굴의 구석기문화
박희현(서울시립대학교 사학과) -창내유적의 구석기문화
최복규(강원대학교 사학과) -한국의 중석기문화
배기동(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동아시아 구석문화전통- 전곡리안

2) 제2회 문화재연구 국제학술대회

주제 : 동아시아의 신석기문화
개최일시 : '93. 11. 15 ~ 11. 18
개최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참가학자 및 주제발표논문 제목

국외학자

도변성(渡邊誠)(일본 나고야대학 문학부) -쥬오몽토기의 기능과 발달-
임식남(任式楠)(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홍룡와문화의 발견과 그 의의 및 동
시기 화북지방 고고문화와의 비교-
MEDVEDEV V.(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분소 고고민족지연구소) -아무르강(흑룡강)
하류지역의 초기 신석기문화

국내학자

안승모(국립전주박물관) -재배식물로 본 동아시아의 신석기시대 농경-
이기길(조선대학교 사학과) -신석기시대 질그릇 만들기에 대하여-
신숙정(단국대학교 사학과) -신석기시대 남해안지방 조개더미유적의 성격-
백홍기(강릉대학교 사학과) -요동반도와 한반도북부지역 토기의 상호관계-
이동주(동아대학교 박물관) -동아시아에 있어서 한국의 초기신석기문화에 대하여-

3) 제3회 문화재연구 국제학술대회

주제 : 동아시아의 청동기문화 -유물을 통하여 본 사회상-
개최일시 : '94. 11. 14 ~ 11. 17
개최장소 :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참가학자 및 주제발표논문 제목

국외학자

림운(林漣)(중국(中國) 길림대(吉林大) 사학과(史學科)) -중국동북지방 청동기시대
의 새로운 고고학적 연구-
암영성삼(岩永省三)(일본(日本) 내량문화재연구소(奈良文化財研究所)) -야요이시대
청동제무기출현의 의의-
POLOSMAK N.(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분소 고고민족지연구소) -고르니알타이의
파지리크 문화유적-새로 출토된 유물들-
하촌지(下村智)(일본(日本) 북강교육위원회(福岡教育委員會)) -일본 유입기(流入期)
의 청동기부장품-

국내학자

최몽룡(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청동기시대의 개념과 한국청동기시대의 시기 구분-

심봉근(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마제석검의 분포와 그 성격-

조유전(국립민속박물관) -청동기시대의 공열토기-

이건무(국립광주박물관) -한국식 동검문화의 성격-성립배경에 대하여-

4) 제4회 문화재연구 국제학술대회(예정)

주제 : 동아시아의 청동기문화 -묘제와 주거-

개최일시 : 1995년 10월 25일 ~ 10월 28일

개최장소 :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참가학자 및 주제발표논문 제목

국외학자

후등직(後藤直)(일본(日本) 북강교육위원회(福岡教育委員會)) -청동기시대의 집락과 청동기부장묘-

MOLODIN V.(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분소 고고민족지연구소) -시베리아지방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의 장례의식-

국내학자

임병태(숭실대학교 사학과) -후기 지석묘사회의 성격-

김병모(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한국 청동기시대의 경제-

지건길(국립 경주박물관) -지석묘사회의 주거생활- 중도유적을 중심으로-



P 340-1



P 340-2



P 341-1



P 341-2